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_우
파견국가	영국	파견도시	Colchester
파견대학	University of Essex	파견기간	2학기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에식스 대학교는 런던에서 기차로 오십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콜체스터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국 자체가 모두가 알만한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식스 대학교는 시내 중심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떨어진 위븐호 공원 한쪽에 캠퍼스를 자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순천향대보다 면적 부분에서는 작아 수업 간의 이동이 편합니다. 또한 국제학생들의 비중이 높아 각국의 학생들을 만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p>
2016-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 LG212-5-AU Analysing the structure of English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한국의 문법강의 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시험은 없이 평가는 에세이로 대체되며 한국에서 문법을 어느정도 공부해 왔다면 부담 없이 영어권 국가의 새로운 방식으로 문장 구조를 공부해 볼 수 있을것이다.</p> <p>- CE243-5-AU C programming and Embedded Systems 2학년 과목으로 c언어를 어느정도 숙달해 있다는 가정 하에 수업이 이루어지며 임베디드 시스템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p> <p>- CE161-4-AU Fundamentals of Digital Systems 기본적인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컴퓨터 관련 학생들이 대다수 참여해서 배우는 1학년 기초과목이다. 그러한 만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 한다.</p> <p>- LA410-4-FY Initial Spanish Class</p>

	<p>모든 과목을 전공으로 채운다는 것에 부담이 있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선택한 코스이지만 기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 있거나 정도 이상의 노력을 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언어학 전공 학생들인 만큼 교양과목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p>
2017-1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 CE266-5-SP Engineering Electromagnetics  한국 학교의 과정에 포함된 전자기학 수업, 두번째 학기였고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하며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한 과목이다. 대부분의 수업이 대체적인 수업관련 지식만 주고 학생 스스로 탐구해 나가는데 목표를 둔 수업방식이었다.</p> <p>- CE263-5-SP Analogue Circuit Design  회로에 관한 수식을 계산하며 관련된 전공지식을 배우는 과목이다. 교수의 전반적인 진행방식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예상했던 바와는 차이가 많은 또 하나의 과목이었다. 전체적으로는 회로자체의 수식 계산에 많이 집중되어있던 과목이었던 것 같다.</p> <p>- CE162-4-SP Digital Electronic Systems  앞서 들은 디지털 시스템 과목의 연장선으로 1학년 과목이며 선수강 과목 중에 하나였다. 시스템 자체의 파동과 신호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며 대부분이 랙쳐 로 진행되며 실험으로는 시스템 제작을 한다.</p> <p>- LA410-4-FY Initial Spanish Class  큰 결심이 필요한 과목이며, 쉽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자 선택한다면 추천 하지 않는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10월 2일 학기 시작 첫 주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주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입학한 학생들과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날마다 정해 일주일간 진행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자유의지에 의해 정해지며 꼭 들어야 한다면 다른 표시가 되어 있으니 그에 맞게 참여하면 된다(비자관련 안내...!).</p> <p>학교에는 교환학생을 담당하는 부서 Essex Abroad 가 있으며 대부분의</p>

	교환학생 관련 업무는 여기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영국의 날씨에 대한 평은 누구에게 들어도 참 절망적이었으나, 이 곳 콜체스터는 날씨만 본다면 정말 영국 내에서도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닐 수 없었다. 그만큼 비도 안오고 대부분이 화창한 날씨의 연속이었다(잉글랜드 동부 콜체스터 지역 근처가 영국 내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p> <p>학기의 시작인 10월은 한국에 비해서 더 쌀쌀하니 외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서늘한 날씨가 봄과 초여름에도 지속된다. 겨울에는 기숙사에 난방이 잘되지 않으니 필요하다면 전기매트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콜체스터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던 대도시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평화로운 동네라고 할 수 있다. 한 두번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밤 늦게만 돌아다니는 것만 조심한다면 안전하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North towers</p> <p>학교 내에 여러 종류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North Keynes tower에서 거주. 노스 타워는 총 4동으로 보통 15층 정도의 높이에 한층에는 13명에서 15명이 각자 방을 사용하며 화장실 4개와 주방을 공유하며 생활합니다.</p> <p>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기숙사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또한 많은 인원이 사용함으로 주방과 냉장고의 여유공간이 다른 기숙사에 비해 넉넉합니다.</p> <p>하지만 이런 공동화장실 사용 부분이 불편하다면 House 나 South court 등을 추천, Meadow 나 Quays 는 학교에서 적게는 5분에서 10분 이상 떨어져 있다.</p> <p>각 방에는 기본적인 책상과 옷장, 형광등과 책상 스탠드 등이 있으나</p>

	<p>필요에 따라 책상 스탠드는 준비하는 것을 추천.</p> <p>세탁은 건물마다 없으며 따로 위치한 세탁실에 가서 카드를 충전해 가며 사용해야 된다. 학교 중심과 각 기숙사마다 있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0) 홈스테이 ( )</i>  <i>외부식당 ( ) 직접 요리 (0) 기타 (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학교 내에는 여러 종류의 교내 식당이 있으나 한두 곳 가본 결과 만족스럽지 못했고 요리를 즐겨하는 편이라 대부분의 식사를 직접 요리해서 먹었다. 학교에서 버스 두세 정거장 거리(도보 10~15)에 Tesco가 위치해 있어 오전 수업이 끝나고 장을 보러 종종 다녀오기에 적합했다. 또한 타운센터와 Quays 기숙사 근처에 위치한 아시안 마트에서도 여러가지 한국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필요에 따라 조금한 밥술을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교통편은 도시 자체가 작은 편이라 노선이 다양하다고 할 수 없었다. 실제로 first 버스의 61번 62번 (타운센터와 대학교, 콜체스터 역까지 운행) 노선만 이용. 학기 시작하고 스퀘어에서 first 버스 회사의 카드를 판매하니 1년간 교환학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가격 1년권 155파운드). 타운 왕복 티켓이 1회에 3.5 파운드 정도 편도 2파운드 정도하니 맘 편히 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올바른 선택이다. 보통 스퀘어에서는 종이로 된 카드를 만들어주니 그것이 불편하다면 스마트폰 앱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p> <p>런던과도 기차 50분 거리로 가까운 만큼 레일카드(티켓의 30%할인)를 구입하는 것 역시 영국여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1년권 10파운드, 같은 가격으로 네셔널익스프레스 코치카드도 있으니 판단 하에 구입)</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아시아나 왕복 112만원	아시아나의 경우 출발 날짜에서 1년까지 같은등급의 항공권의 경우 추가 수수료 없이날짜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추가금액은 없었다.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있는 개인보험을 제외하고는 영국 자체의 NHS 의료서비스에만 가입을 했다.
숙소		주 88.20 파운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총 3회로 나눠 계산 총 3427,20 파운드(1500원 기준 약 514 만원)
식비		학교 내 식당은 보통 5~6파운드 수준으로 간단한 빵,음료부터 퓨전음식점 까지 다양하다.
교통비	115파운드 히드로공항 - 콜체스터 155파운드+10파운드+α	교통비는 각자의 계획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는 하나 처음 콜체스터로 가는 길에 학교의 버스이용이 어려워 같이 가는 친구와 공항 택시를 타고 콜체스터 까지 이동하였고 115파운드 가량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콜체스터 내에서는 구입한 버스 카드로 추가요금 없이 이용가능했다. 런던까지의 기차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off-peak, peak로 나뉘지는데 잘 피해서 다닌다면 보통 편도 가격이 6~7파운드로 왕복 15를 넘지 않는 가격이었다.
책값	20파운드	특별하게 책을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은 것은 없었다. 대체로 pdf 파일로 다 수업을 진행하며 필요에 의해 프린트를 하는데 들은 비용을 넉넉잡아 계산하였다.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영국은 출입국이 까다로운 만큼 비자 관련해서 촉박하게 업무를 보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보통 결핵검사를 선행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잘 맞춰 하기 바란다.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0월에 맞춰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핵검사(세브란스병원)를 받으려고 방학기간에 방문하기 때문에 예약에서 실제 검사까지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원하는 시간에 미리 접수를 해야된다. 또한 사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재정증명서도 준비하였다. 일단 결핵검사를 완료하고 인터넷으로 비자신청을 하면서 관련된 NHS보험까지 한번에 인터넷으로 결제를 했다.

영국 교환학생의 경우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방학이 한달 쯤 두번 있으므로 실제로 학기 생활을 하며 다른 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교환학생 준비기간에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생각해보고 오기 바란다. 영국 만이 아닌 대부분의 유럽 나라가 그러하듯 대부분의 상점이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저녁시간부터는 각자의 계획에 따라 생활을 해야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음식 같은 부분은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학생들 중 중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처 아시안 마트 에서 대부분의 식재료 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입니다. 또 런던과 가깝다는 점에서 런던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마트에서도 대부분의 한국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Tesco가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재료를 싸게 구할 수 있어 식사를 해결하기 좋지만 필요하다면 조금한 밥솥을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생필품들은 타운 내, 파운드랜드와 윌코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테스코에서도 가능하다. 핸드폰은 타운 내에 three 등 여러 통신사 대리점이 있으니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 사용할 것,

학교에 도착을 하면 먼저 신청한 비자(학교 내 우체국으로 신청할 것)를 수령하고 은행계좌를 만들려고 한다면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학기 초반에는 대부분이 신청하는 만큼 길게는 계좌 사용까지 3주에서

4주가 걸린다.

어느 나라의 어느 학교의 교환학생을 준비하던지 무엇보다 자신의 학과와 진로에 맞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쉽게 생각하고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과목과 학과가 희망 학교에 있다고 무작정 교환학생을 준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길게는 1년 간의 생활이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삶의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낭비가 될 수도 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정말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 결정하게 된 교환학생 기간이었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만의 힘으로 1년을 외국에서 이었던 만큼 겪었던 모든 기억들이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만의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 교환학생 기간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지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North tower 부엌



	
<p>학기시작 오리엔테이션</p>	<p>콜체스터 시내</p>
	
<p>코리안소사이어티 한국어 강의</p>	<p>보이스 오브 에식스 공연</p>
	
<p>캠퍼스 내 스퀘어</p>	